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무부, 산업부, 국제부, 복지부 및 보건의료 담당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담당 : 이동근 사무국장 010-9697-0525, donodo@naver.com)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이경민 팀장 02-723-5056, welfare@pspd.org)

정보공유연대 (담당: 김조은 운영위원 010-4109-4380)

제 목 [보도자료]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21. 04. 28. (총 3쪽)

보 도 협 조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일시 장소 : 2021. 04. 29. (목)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

-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제약기업들과 미국과 유럽 등 부유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 낸 지적재산권과 특허제도라는 배타적 독점권을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대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 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지만, 초기에 공평한 백신 사용을 약속했던 부유한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 행태를 보이며 백신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와 가장 근접한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의 사람도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2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건강 불평등은 경제 불평등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쳐 부유국과 가난한 나라 간 심각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를 팬데믹 상황에서라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기 위해 중저소득국가들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이하 ‘**트립스 유예안**’)을 제출하여 시급하고 긴급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 유예함으로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도 트립스 유예안이 발효된다면 세계 백신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총동원하여 전체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인류애를 통한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배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 지난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지지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미 트립스 유예안은 **WTO** 회원국 $\frac{2}{3}$ 이상과 국제기구, 전 세계 수백 개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영국의회 의원, **342명**의 유럽의회 의원과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의원이 지지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버니샌더스 상원의원 등 **60여명**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트립스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지지한다고 발언했지만 트립스 협정 유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5월 5일과 6일** 양일간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국회가 이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국정부가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자세로 트립스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만이 모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 일시 및 장소 : 2021. 04. 29.(목) 10:00 / 국회정문 앞
- 주최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언1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2 :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 코디네이터)
 - 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4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 발언5 : 김흥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 발언6 : 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진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참고1 : [민중건강운동 브리프 2021-02] 트립스 유예안,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독점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를 촉구하다 [\[원문보기/다운로드\]](#)